

## 심볼마크 | Symbol Mark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시작되는 어촌마을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바다에서 솟아 오르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무형 자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BUSAN의 영문 첫 이니셜 B자와 결합하여 표현한 디자인이다. 6차 산업을 통해 어촌마을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어촌 주민의 역량강화를 선도하고자하는 센터의 강한 의지를 담아 디자인하였다. 컬러시스템에서는 그라데이션 블루컬러와 그린컬러를 메인컬러로 풍요로운 도시 부산과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한 희망의 바다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심벌마크는 대내외적으로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활용시에는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